

놀워к 라미라다(Norwalk La Mirada) 교육구 허친슨(Hutchinson) 중학교 한국어반 개설

- LA한국교육원이 3년간 최대 3만불까지 한국어반에 지원. 각종 필드트립 및 교수 학습자료 지원
- 놀워к 라미라다 교육구 내 초등학교에도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Kinder에서 12학년까지 연결되는 한국어 교육 실시 예정

- LA한국교육원(원장 강전훈)은 3월 12일 놀워к 라미라다(Norwalk La Mirada) 교육구의 허친슨(Hutchinson) 중학교와 한국어반 신설을 지원하는 업무협약(MOU)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
-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놀워к 라미라다 교육구의 존 로페즈(John M. Lopez) 교육감과 제시카 메드라노(Jessica Medrano) 부교육감, 제니 배(Jenny Bae) 허친슨 중학교 교장 및 LA한국교육원과 한국어진흥재단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한국어반 학생들이 한복, 제기차기 등 한국어반에서 배운 한국문화에 대해 학부모님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- 존 로페즈(John M. Lopez) 교육감은, “현재 허친슨(Hutchinson) 중학교와 연계되는 라미라다(La Mirada)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2년 뒤에는 초등학교에도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Kinder에서부터 12학년까지 연결되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” 고 말하고, “앞으로 LA한국교육원 및 한국어진흥재단 등 교육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한국어 프로그램을 성장시키고 싶다”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
- 제니 배(Jenny Bae) 허친슨 중학교 교장은, “우리 학교 커뮤니티는 한국계 학생들과 비한국계 학생들의 비율이 적절히 분배되어있고 K-Pop 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. 설문조사 결과 20% 이상의

학생들이 한국어를 수강하겠다고 답변했고 학생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한국어반을 개설하게 되었다” 고 말하고, “2년뒤 초등학교에도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인데 초등학생용 한국어 교재 및 자료가 많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. 앞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료가 더 많이 개발되길 기대한다” 고 밝혔습니다.

- 클라우디아 델가도(Claudia Delgado) 한국어반 학생 학부모는, “한국과 멕시코 다문화 가족인 아들이 증조할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어하고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” 고 말하고, “비록 나는 한국어를 할 줄 모르지만 나의 자녀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배우는 모습이 자랑스럽다”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
- 강전훈 LA한국교육원 원장은, “Kinder에서 12학년까지 연속성 있는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” 고 말하고, “라미라다(La Mirada) 고등학교와 벤톤(Benton) 중학교에 이어 허친슨(Hutchinson) 중학교와도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놀워크 라미라다(Norwalk La Mirada) 교육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”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

붙임 : MOU체결식 사진 5부. 끝.

※ 관련문의 : LA한국교육원 (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)
(213-386-3112) Homepage: www.kecla.org

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	담당자	이상범 부원장 (213-386-3112)
	담당자	



사진 1: MOU 체결식을 위해 도서관에 모인 한국어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



사진 2: 한국어반 학생들에게 격려사를 하고있는 John M. Lopez 교육감



사진 3~5: 한국어반 학생들이 배운 한국문화 소개



이름 Gavin B

이름 채빈

남자 한복 색칠하기



이름 Cooper

